

장애인 친구와 함께

아이디어부문(학부모)

우수상 이차현

초등학생 3남매를 둔 다둥이 맘입니다. 최근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재난 지진대피요령 안내문을 받아왔습니다. 찬찬히 내용을 읽어 보니 지진 발생시 대피훈련 과정이 단계별로 자세히 작성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훈련내용이 따로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 이번 제2회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아 친구들의 대피훈련은 장애반 선생님과 함께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비장애인인 친구들과 함께 대피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친구와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장애종별의 친구들의 협력과 도움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대피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때문에 주로 보호자에 의한 대피가 의례 시 되는데, 이를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먼저

1.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적합한 재난 대응 훈련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 반면 대다수의 초등학교에 일부 소수의 학생으로 구성된 전 학년 특수학급이 한 반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따로 재난 대피 훈련방법이 모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장애유형별로 다른 대피훈련방법 공유

2. 15가지의 장애종별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의 안전 교육(ex)장애유형별로 재난 경보체계 마련)은 물론, 장애종별에 맞는 재난 대피용 보조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장애인시설의 이동편의 증진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및 노인유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일반 초중고 특수학급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3. 대피 방법 제시 시 보호자인 특수학급 장애담임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전담시키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장애인 친구와 함께'하는 피난 대비 훈련으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는 협력으로 보다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이 추진된다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제의식 고취를 비롯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음과 더불어 장애인 친구와 함께 재난 대피를 함으로써 누리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인성교육 까지 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